

# 두드려라! 깨달음에 이를때까지

### 타악 퍼포먼스 '야단법석' 내달 8일 무대에

### 성격 서로 다른 다섯스님 좌충우돌 수행기 공연 중간중간 緣起·오도송으로 주제 전달

식별한 머리에 승복을 입은 배우들이 두드리고 또 두드리며 깨달음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을 그린 전통타악 연구소(소장 방승환)의 이색 타악 퍼포먼스 '야단법석(흥인호 작 서승규 연출)'이 3월 8일부터 24일 서울 종로 연경홀 무대에 오른다.

'야단법석(野壇法席)'은 이외에 단을 쌓고 불법을 설파한 법회에서 유쾌한 말로서, 이 퍼포먼스는 단순히 스님과 운반·목탁·죽비 등 불교의 상징들을 소재로 차용한 것이 아니라 두드리며 함께 즐기는 가운데 연기와 무아 사상 등 불교의 가르침을 관객들에게 전하고자 한다.

야단법석은 전생의 업(業)에 따라 타고난 본성이 다른 다섯 명의 스님들과 전생과 현생의 세계를 넘나드는 세 명의 보살이 일상 속에서 부딪히는 사건들을 웃음과 재치, 타악과

무용으로 풀어간다.

조금 어눌한 듯하지만 순수한 영혼의 소유자인 천진스님, 성격이 급해 쉽게 흥분하는 허공스님, 답답할 정도로 느린 아공스님, 현실의 지혜보다 경전에 의지하는 여리고 약한 현암스님, 매사에 멋과 예를 강조하는 무산스님 등 우리 주변의 친구나 이웃 같은 친숙한 스님 캐릭터가 퍼포먼스의 생명력을 더하고, 관객들과 공감대를 이루는데 도움을 준다. 죽비와 목탁, 바라, 경전 등은 사건과 사건을 이어가는 매개체가 되고, 손바닥 발바닥을 비롯한 온 몸의 터치가 그대로 장단과 박자를 이루어 하나의 새로운 음악이 된다.

특히 이번 무대는 전통 타악의 다양하고 풍부한 음악성에 현대적인 리듬까지 가미하여 음악적 완성도를 높이고 연주 뒤에 깔은 웃음과 감동을 이끌어



◇'야단법석'은 두드리고 즐기는 가운데 연기와 무아사상 등 불교의 가르침을 관객들에게 자연스레 전달한다.

낼 수 있는 극적 장치를 설치해 주제 전달의 취약성을 극복할 수 있도록 했다.

공연 중간중간 선보이는 '연기송' '무아가' '오도송' 등은 연출가 서상규씨가 옛 고승의 오도송과 교리 등을 인용해 만든 가사에 작곡가 김상철씨가 곡을 붙여 이해하기 쉬운 내용과 불교적 정서가 묻어나는 선율로 주제, 전달에 도움을 주고 있으며, 노래마다 음악이반예송 진언과 <반야

심경>의 마지막 부분인 아제아제바라야제를 후렴구로 불러 한층 장엄한 분위기도 연출한다. 또한 무대 뒤편에 대형 법륜(法輪)을 설치해 법륜이 굴러가는 동안 퍼포먼스가 진행되고, 마지막 무렵엔 법륜이 일원상(圓相)으로 바뀌어 출연자들이 그 속으로 들어가는 형식으로 깨달음의 성취

를 상징적으로 표현한다.

이번 공연을 위해 전 출연진과 스태프들은 지난달 송광사에서 2박3일간 생활하며 불교 교리를 공부하기도 했으며, 새벽부터 저녁까지 이어지는 향자승들의 생활을 화암사에서 실제로 체험하기도 하는 등 불교 소재의 공연을 소화해 내기 위해 특별한 노력을 기울였다.

문화 담당= 이은지 기자 elee@buddhapia.com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불국사전경.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한국의 문화유산 8곳의 모든 것을 담은 DVD 시리즈가 나왔다.

## 한국 세계문화유산 8곳 DVD시리즈 선봬

한·영·일 3개국어, 주변 역사도 함께

불국사와 석굴암, 경주 역사유적지구, 해인사 장경판전, 고인돌 유적, 종묘(종묘제례악), 황령궁, 수원화성 등 대표적인 문화유산을 소재로 최첨단 멀티미디어 기법으로 제작한 이 시리즈는 DVD종합 엔터테인먼트 회사인 알엠제이시(RMJCO)가 7년여 동안 준비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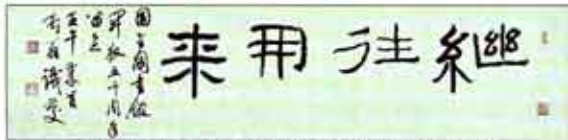
이 시리즈는 한국어·영어·일본어 3개 국어가 나레이션과 자막으로 지원되며, 문화유산 주변의 사계와 역사, 생활까지를 생생한 화면으로 담아내 활용 가치가 크다. 알엠제이시는 한국의 세계문화유산 시리즈에 이어 각도별 테마별 문화재를 DVD화 하는 작업을 추진, 이를 영상대백과사전으로 개발할 계획이다. 현재 국내 최대의 한국 문화유산 동영상 사이트인 www.kowit.com도 운영하고 있다. ☎2549-6245

## 여초 김응현 서예展

3월 5일 국회도서관서

원로 서예가 여초(如初) 김응현(75세)가 3월 5일부터 14일 국회도서관서 서예전을 갖는다.

이번 전시는 국회도서관 개관 50주년을 맞아 마련된 것으로, 김씨는 1952년 한국전쟁 당시 국회



◇여초 김응현 작 '계왕개래(계왕을 계승해 미래를 연다)'



성악가 정률스님의 두 번째 앨범 '노래로 하는 기도-영결을 하루같이 1'이 첫 앨범 '영결을 하루같이 1'이

도서관 최초의 직원으로 입사해 61년까지 근무하며 <국회보>의 편집과 도서관 설치에 직접 관여했다. 김씨는 이번 전시에서 원손으로 쓴 좌수서(左手筆) 20여점을 비롯해 모두 51점의 작품을 선보인다. 국회도서관 개관 50주년을 기념해 쓴 휘호 '계왕개래(繼往開來)'는 전시 후 도서관에 영구 소장된다.

## 문광부, 문화사절단 파견

문화관광부는 최근 '월드컵 개최 계기 활용 우리 문화 세계화' 사업 방안을 마련하고, 3월~4월 독일·아일랜드·세네갈 등 본선 진출국에 문화사절단을 파견한다. 4월에 코스타리카·파나마·에콰도르·칠레 등 5개국에서 국립국악원의 전통예술 공연을 소개할 예정이며, 연말까지 베트남·우크라이나·카자흐스탄·프랑스·러시아·일본·중국·스페인 등의 축제 현장을 찾아 승무와 살풀이, 판소리 등 우리 전통 문화를 선보인다.

## 정률스님 두번째 앨범

'노래로 하는 기도' 출시

스님의 고운 소프라노 목소리를 들으며 하는 독창곡 위주였다면, 이번 앨범은 누구나 자연스럽게 따라 부를 수 있는 영결 기도송이라는 독특한 형식이다.

'아미타불 정근송' '광명진언 기도송' '약전계송' '화엄성종 정근송' 등에 이들 곡의 서곡까지 총 8곡이 수록돼 있다. 대만의 불

교음악인 '나우아미타불 정근송'을 제외하고는 모두 스님이 작곡했다.

"모든 불자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음악을 들듯이 영결을 경험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번 앨범을 준비했다"는 스님은 "우리 전통악기인 아쟁과 대금, 가야금 등과 서양악기인 피아노, 기타 등을 적절히 활용해 새로운 형식의 불교음악을 선보이려 했다"고 밝혔다. 스님은 조만간 자신의 불교음악을 소개하는 홈페이지도 열 예정이다. www.jangul.or.kr



김홍근이 쓰는 문학 속의 불교

봄맞이 가지 않겠느냐는 친구의 권유를 받았지만, 시간이 맞지 않아 따라나서지 못했다. 눈이 남아있는 산 속에 꽃이 피는 복수초(福壽草)를 보며, 친구는 포천 백운계곡 너머 공덕산으로 떠났다. 화산(花叢)을 기다리다 못해, 얼굴을 들고 빠져 나오는 노란 꽃잎을 직접 찾아 나선 그 심정이 이해될 만도 하다.

해마다 이맘때면 봄이 언제 오나 하고 마냥 기다려진다. 이제 얼마 후면 우리 주변에서도 수줍은 듯 작은 연노랑 꽃을 터뜨리는 산수유를 쉽게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 목련, 진달래, 개나리, 라일락 등이 앞다퉈 온 산을 울긋불긋 들들일 것이다. '봄'은 진정 '보는(見)' 계절인가. 봄을 맞아 꽃피는 것을 보는 것처럼 우리의 내면 속에서도 정신의 꽃이 피어나는 것을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진종일 봄 찾아 헤맸지만 찾지 못하고  
塵日尋春不見春  
질신 끌며 구를 댄 재 넘어 두루 돌아다녔네  
芒鞋踏遍嶺頭雲  
집에 돌아와 우연히 매화향기 맡아보니  
歸來偶把梅花嗅  
봄은 매화가지 끝에 이미 와 있는 것을  
春在枝頭已十分

## 비구니 스님의 '봄맞이'

집에 돌아와 보니 봄은 매화가지 끝에 이미 와 있는 것을

어느 비구니 스님의 오도시(悟道詩)로 알려진 이 유명한 시는 다시 읽어봐도 그 절묘한 비유와 표현이 선미(神味)를 담백하고 있다. 그러나 예전에는 아무 문제없이 술을 잘 잊혀던 이 시가 오늘날은 왜 이렇게 내 마음에 걸리는지 모르겠다. '집에 돌아와 보니 매화나무에 꽃이 피어있더라'는 대목이 목에 딱 걸리어 넘어가지 않는다. 그 스님은 자기 마음 속에서 꽃(本性)을 보고 냄새도 맡았다. 그것(微塵)이 아닌가. 일단 꽃을 보았다면, 그 스님의 마음은 늘봄(恒時長春)이 되어 그 꽃은 영원히 시들지 않을 것이다. 봄이 오면 꽃이 피는 것은 자연이지만, 인생에선 꽃이 피어야 봄이 온다. 매화 향기가 나지 않는 내 마음을 들여다보면, 이 긴 겨울이 언제야 끝날 것인지 답답하기 그지없다. 그 비구니 스님이 맡았다는 꽃향기를 내 마음 속에서도 맡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우연히 TV 드라마를 보다가 주인공이 '첫사랑을 한시도 잊은 적이 없어' 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 그 말을 듣고 돌아켜보니, 나도 첫사랑(初恋)을 처음 느꼈던 그때의 설레는 마음과 또 그 순간을 잊지 못해 도서관과 산사(山寺)로 방황하며 떠돌던 듯한 나날들이 떠올랐다. 무수한 슬바꼭질이 되풀이되었지만, '남'은 그 아름다운 얼굴을 쉽게 보여주지 않았다. 좌절과 실망 속에 그리움은 무뎠고, 남의 모습은 흐려져 가물거들거들만 하다.

자연에선 기다리면 기필코 봄이 오지만, 인생에선 기다리지만 해선 결코 봄을 맞이할 수 없다. 그러나 찾아 나선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도 아니다. 다만 이 간절한 그리움을 품고 오늘도 기다리는 수밖에. 매화꽃 향기에 취해 은은한 미소를 띤 그 스님의 얼굴이 부럽기 그지없다.

## "자비의 등 지혜의 등" - 손 불국토를 장엄 하겠습니다

찬덕 연등은 최고 품질과 기술력을 자랑합니다.

팔모접등

팔모조립등

공단등

종 등 신제품 • 실용신안 등록 • 의장출원

만월등

시공현연등용 전선 케이블

• 종 소리는 지옥 중생을 구제하고 영안과 고정을 명주계 한다고 하여 옛 사람들은 초하와 전에 종등을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뜻을 전하고자 전신연등제작사는 '부처님오신날' 각종 불일 및 행사 때 쉽게 장엄할 수 있는 신제품 종등을 개발하였습니다.

종등 모란상대

◆연등일 제조특허(특허 제122168호) / 팔각형 실용신안(등록 제098634호)와 의장등록 디자인 보유업체◆

**찬덕 연등제작사** 전화: 0311 792-6288, 794-4055  
친목 홈페이지: www.chanduk.com  
경기도 아남시 춘궁동 180-1 e-mail: chanduk21@hanmail.net